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건축과 도시를 매개로 하여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상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하는 국제 행사이다. 서울비엔날레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 더불어 문학, 공연, 영화 등 예술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현대의 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중, 전문가, 예술가와 건축가,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과 정책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BAU) engage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in research and debate on the future of cities around the world. Participant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geography and economics to literature, art, theater, and film have been invited to put forward innovative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actively involve the public to engage with experts, artists, architects and policy makers, in intense debate on our current state of urb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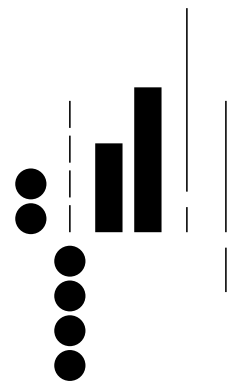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집합 도시 COLLECTIVE CITY

2019 서울비엔날레의 목표는 시민들이 세계 도시의 창조와 변화 과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이들 시민이 각 도시의 사회화 및 도시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집합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비엔날레는 전 세계 도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 건축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The 2019 edition aims to create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 the public in the cre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ir cities, and to develop new collective strategies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e socio-urban dynamics of the city. The biennale will serve as a global platform in urban architecture to share experiences of global cities and to explore innovative responses to their multiple challenges.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9.9.7. - 11.10.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디자인재단

개막포럼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Opening Forum
(City Architect Forum)
2019.9.6. - 9.7.

글로벌스튜디오 심포지움
Global Studio Symposium
2019.9.8.

도시전
Cities Exhibition

2 3

전세계 80여개의 도시를 초대하여, 비엔날레의 전체 주제인 집합도시를 바탕으로 각각의 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이슈를 통해 도시간의 연결과 집합의 결과물로서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Collective City," SBAU 2019 Cities Exhibition is a platform for discussing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themes raised by participating cities. The goal of this year's discussion is to better understand the collective consequences of connections and meetings between cities.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7 Sep - 10 Nov, 2019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9.9.7.

폐막식
Closing Ceremony
2019.11.10.

글로벌스튜디오
Global Studio

5

국내외 43개 교육기관의 연구자와 학자가 모여 현대 도시의 건축에서 다양한 집합활동 및 형태를 실험, 분석 및 재평가를 통한 연구를 한다. 이를 통하여 집합도시에 대한 외연을 확장하고 비엔날레에 중요한 담론과 비전을 제공한다.

Global Studio exhibition plays a meaningful role i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theme through the engagement of talented students and academics from renow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현장프로젝트
Live Projects

4 6

시장은 집합으로서 도시의 형태를 가진다. 원초적인 집합도시인 전통시장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우리의 도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작업으로 비엔날레 기간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진행된다.

The marketplace serves as an example and case study of how questions of the collective have evolved and the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 of these market models. Live Projects exhibition explores the challenges currently facing our cities from this important and universally recognizable urban form of marketplaces.

시민참여프로그램
Public Programs

1 2 3 5 6

놀고, 만들며, 토론하는 활동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에서부터 서울의 근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건축투어, 서울국제건축영화제와 연계한 영화상영, 토크, 포럼 등의 영화관련 이벤트 그리고 그 외 시민들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Public Programs vary from lectures, hands-on exhibit programs, educational programs, collective city tours, various film screenings, talks and more as a festival of events under the overarching theme "Collective City."

주제전
Thematic Exhibition

1

주제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35여개의 팀과 함께 집합적 실천과 행위가 어떻게 현재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간 생산의 지배적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Thematic Exhibition seeks to question how modes of collective practice and action can challenge the current paradigms of city development and offer resistance to the dominant systems of spatial production.

